

배포일: 2023. 8. 20.	쪽수	사진	누리집	자료 문의
2023 경기시민예술학교 <일상의 기록, 예술이 되다> 참여자 모집	3쪽	있음	http://www.ggcf.kr/	부서 : 경기문화재단 예술교육팀 담당 : 곽지효 전화 : 031-853-9827

경기문화재단, 2023년 경기시민예술학교 <일상의 기록, 예술이 되다> 참여자 1차 모집

- ▶ 8월 18일(금)~8월 30일(수) 경기문화재단 누리집 통해 신청
- ▶ '괴물 전문가' 곽재식 작가의 기록에 관한 특강을 포함하여, 문학과 드로잉, 디지털미디어, 소마틱스 등 예술이 '기록'과 만난 총 4개 프로그램이 강연 및 워크숍 형태로 운영되어
- ▶ '갯생'을 의미 있게 기록하고자 하는 성인이라면 자신의 일상을 여러 예술 장르로 기록하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은 8월 18일(금) 오전 10시부터 8월 30일(수) 오후 11시까지 2023 경기시민예술학교 <일상의 기록, 예술이 되다>의 참여자 1차 모집을 진행한다.

경기문화재단의 성인 예술교육 브랜드 경기시민예술학교에서 2023년 추진하는 <일상의 기록, 예술이 되다>는 문화예술기획 전문단체 미들클래스 소사이어티 사회적협동조합이 협력하여 운영한다. 본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다양한 예술의 형식으로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는 행위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기록의 관점과 방식에 따라서 기록이 단순히 기억을 대체하는 수단을 넘어 그 자체로 자신을 표현하는 예술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일상의 기록, 예술이 되다>는 '기록'을 주제로 하는 4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개별 프로그램은 문학과 드로잉, 디지털미디어, 소마틱스라는 여러 예술 장르를 취하여 강연 또는 워크숍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다가오는 9월 2일(토) 강연을 시작으로, 9월부터 10월 사이 수원, 부천, 고양의 주요 문화예술공간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은 2차로 나누어 진행하며, 9월에 운영하는 강연과 워크숍의 참여자를 1차로 모집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한국의 '괴물 전문가' 곽재식 작가의 강연 "'괴물'을 통해 살펴본 기록의 일상성과 예술성"이다. 강연자인 곽재식은 화학 및 기술정책을 전공한 공학 박사로서, 과학저술가이자 화학자, 환경공학자로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매체 스토리텔러이기도 하다. 곽재식 작가는 과학과 역사, 문학 등 분야를 자유로이 넘나들며 활발한 방송 및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물사담회(EBS1)', '당신이 혹하는 사이(SBS)', '김영철의 파워FM-과학편의점(SBS)' 등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과학적 상상력과 유쾌한 입담을 선보였다. 저서로는 '채널을 돌리다가(SF 보는 법, 읽는 법, 만드는 법)(2022년, 열린책들)', '한국 괴물 백과(2018, 위크룸프레스)', '항상 앞부분만 쓰다가 그만두는 당신을 위한 어떻게든 글쓰기(2018, 위즈덤하우스)' 등이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작품 활동을 전개 중이다.

본 강연에서는 한국의 옛 기록에서 발견된 의외의 한국 괴물 전설을 살펴보고, 기록의 보존, 공유, 활용을 통해 한국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술적 소재의 다양성과 더불어 문화 상품 개발 및 발전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프로그램 모집인원은 60명이며, 9월 2일(토)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경기상상캠퍼스 공간 1986에서 진행된다.

두 번째 프로그램 "나의 SNS, AI와 함께 만드는 Life Collage"는 임지영 작가가 진행하는 참여형 워크숍이다. 임지영 작가는 영상, 글쓰기, 그리기, 설치작업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는 미디어아트 작가로, AR, VR 등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작업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본 워크숍에서는 참여자가 SNS 속 내 일상의 기록에서 나만의 패턴을 찾아내고, 이 패턴을 모티브로 AI와 협업하여 작은 에세이와 이미지를 재창조하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워크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여자 본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보유하여야 하며, 개인 노트북을 반드시 소지하여 참여해야 한다. 소셜미디어의 유형은 카카오토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무관하다. 프로그램 모집인원은 15명이며, 9월 9일(토)부터 9월 23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총 3회차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장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고양예술창작공간 해움에서 진행된다.

위의 프로그램 모두 20대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다양한 예술 매체를 통한 기록 행위로 자신을 통찰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유의미한 경험이 될 것이다. 참여 신청은 8월 18일(금)부터 8월 30일(수)까지 경기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와 간략한 자기소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프로그램별로 신청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참여자 선정이 이루어진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기가 명확하고, 프로그램의 전체 회차에 참석 가능한 신청자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일상의 기록, 예술이 되다>에 포함된 4개 프로그램 중 2개의 프로그램은 10월 중 운영된다. 기록과 드로잉 작업을 결합한 워크숍 <드로잉으로 시작하는 Life Tracking(강사 김탕)>과 기록과 몸 움직임 활동을 결합한 워크숍 <몸과 기분 사이_Selfie(강사 달라라)>의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은 9월 12일(화) 시작할 예정이다.

경기시민예술학교 <일상의 기록, 예술이 되다>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참여 신청 방법은 경기문화재단 누리집(ggc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첨부사진

- 이미지 파일 별도 첨부